

P R E S S K I T



예 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살아 계신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

구주께서 인도하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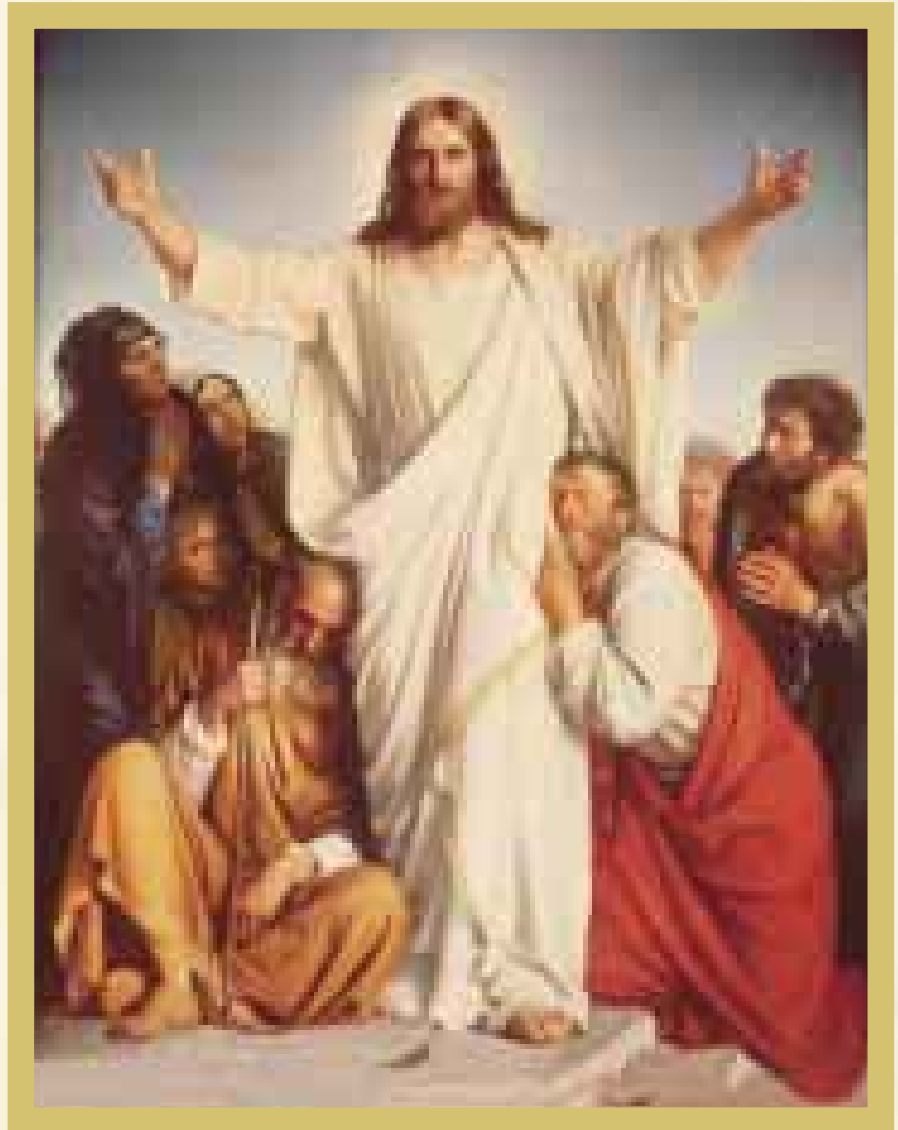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구원에 필수적인

의식들을 집행할 권능과

회복된 교리의 토대 위에서

주님의 사업을 수행한다.



목차

개관	ii
매스컴(미디어) 보도 방법에 관한 안내	1
역사	2
구성 및 조직	6
핵심적인 믿음과 교리	8
성전 : 가족이 영원히 맺어지는 곳	11
선교사 프로그램	13
복지 및 인도주의적 봉사	15
교회 교육 기구	18
태버넌클 합창단	19
주요 사실과 수치	20
회원 분포	21
교회 회원들에 의해 사용되는 언어 10가지	22
교회의 성전	23
교회 재정	25
교회에 관한 '잘못된 개념'	27
한국 교회의 역사 및 현황	29
연락처	30

연락처 : 한국 공보 위원회 (02)-2232-1441(내선 번호 363)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 6동 103-1
100-456

Website: www.lds.or.kr ; www.lds.org

개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살아 계신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 구주께서 직접 인도하시는 교회이다. 이 교회는 구원에 필수적인 의식들을 집행할 권능과 회복된 교리를 갖고 주님의 사업을 수행한다.

배도와 회복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계시는 동안 베푸신 중요한 성역 가운데 하나는 공식적인 조직, 즉 교회를 세우신 것이다. 그리스도는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뒤에도 계속해서 그분의 성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권능과 임무를 부여하셨다. 그들의 주요 임무는 복음을 전파하고,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구원에 필수적인 의식들을 집행하며, 하나님 왕국의 참되고 합당한 교리들을 선포하는 일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기원 후 1세기 전에 모든 사도들이 죽게 되었고, 교리는 변질되었으며, 진리는 유기되었다. 그 결과 수세기 동안 영적인 암흑이 이 세상을 뒤덮게 되었다. 영적인 암흑 상태는 1820년 봄, 어느 아침에 비로소 끝이 난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조셉 스미스라는 이름의 소년에게 나타나셨고, 그리스도 시대 교회에 있었던 모든 진리와 권세, 신권 권능을 회복한 것이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회복됨과 동시에 다음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

- 신화에 관한 정확한 지식이 다시 세상에 주어졌다.
-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는 신권 권능이 세상에 다시 주어졌다.
- 인류를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살아 있는 선지자들에게 다시 계시를 주셨다.
- ‘몰몬경 -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 ‘성경’ 및 다른 거룩한 경전들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고, 그분의 목적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 경전상의 율법은 폐지되지 않았다.
- 선교사들이 전세계 수많은 국가의 국민들에게 회복된 복음을 가르치고 있다.
- 산 자와 죽은 자를 구원과 승영으로 이끄는 데 필수적인 의식들이 회복되었으며, 이러한 목적을 위해 전세계에 성전이 지어지고 있다.
-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더욱 굳건해짐으로써 지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도움과 세상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1830년 4월 6일에 6명의 회원으로 정식 조직되었다. 현재 교회 단위 조직은 160개 이상의 국가 및 지역에 설립되어 있다. 회원수가 1천 2백만 명 이상인 이 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종교로 손꼽히며, 미국에서 네 번째로 큰 기독교회이다.

매스컴(미디어) 보도 방법에 관한 안내

기록 방법 안내 - 교회의 명칭

공식적인 명칭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입니다. 1838년, 하나님께서 조셉 스미스에게 계시로 이 완전한 명칭을 제시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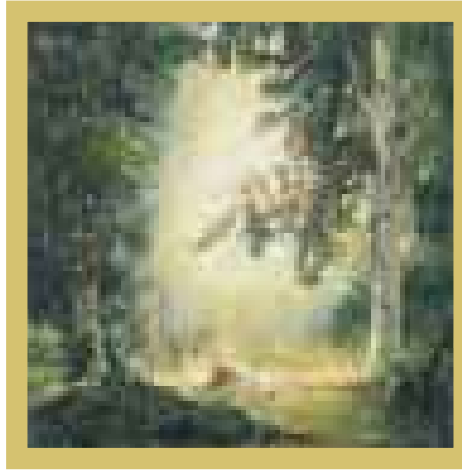
오랫 동안 공개적으로 ‘몰몬 교회’ 라는 단어가 교회의 별명으로 사용되었지만 그것은 교회에서 인정하는 명칭이 아니며 교회는 그 명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관해 기록할 때 아래 지침을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교회의 완전한 명칭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몰몬 교회’, ‘LDS 교회’ 그리고 ‘후기 성도 교회’ 라는 용어를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회 명칭을 간략히 써야 할 경우 ‘교회’ 또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 라고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회 회원은 “몰몬” 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가급적이면 “후기 성도”라고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몰몬’ 이라는 단어를 올바르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가령, 몰몬경, 몰몬 태버네클 합창단, 몰몬 트레일(이주로), 또는 “몰몬 개척자”와 같은 표현처럼 형용사로 쓰일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몰몬이즘’ 이란 용어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독특한 교리, 문화 및 생활 방식의 결합을 묘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용어입니다.
- 일부다처제를 실행하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를 이야기할 때 ‘몰몬들’, ‘몰몬 근본주의자’, ‘반체제 몰몬들’ 등의 표현은 옳지 않습니다. 연합 통신사(AP) 기록 방법 지도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몰몬’ 이라는 단어는 조셉 스미스의 사망 이후 분리되어 나온 다른 교회들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역사

1820년,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조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셔서 가르침을 주셨으며,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이를 계기로 1830년 4월 6일에
뉴욕 주 페이엠티에서
공식적으로 조직되었다.



조셉 스미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시고
주님의 사도들이 사망한 이후, 다신교 국가였던
로마 제국의 조직적인 박해와 적대 행위 앞에
간결하고 아름다운 교리와 권능을 지닌 그리스도
교회는 급속하게 변화하기 시작했다. 4세기경,
교회는 초대 그리스도 교회와의 유사점을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교회가 신성한 인가와
권능을 상실하자 오랜 기간의 영적인 암흑이
뒤따랐다.

1820년 봄, 세상의 다른 한편에서는 지상에
초대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복을 이끈 사건을
추진할 조셉 스미스라는 이름의 14세 소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조셉 스미스는 미합중국 동북부에 있는 버몬트
주 샤론에서 1805년 12월 23일에 태어났다. 후에
그는 그의 가족과 함께 뉴욕 주 팔마이러라는 시골

마을로 이사했는데 1820년에 이곳에서 종교
부흥이 일어났다. 신앙에 대한 다양한 주장에
혼동된 조셉은 인도를 구하기 위해 성경을
읽었으며,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나 … 하나님께 구하라”는 말씀을
발견하게 된다.

농장 근처에 있는 나무 숲에서 조셉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성경 시대 이후 가장 극적인
계시의 장소로 예정되었던 그곳에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 이 소년에게
가르침을 주셨다. 조셉은 어느 교회에도 가입하지
말라는 명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지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조직했던 초대 교회의 모든 진리와
신권 권능을 가진 교회를 회복하시겠다는 말씀을
들었다.

10년 뒤, 조셉과 다른 사람들에게 일련의
계시와 주님의 종의 방문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뉴욕 주 페이엠티에서 1830년
4월 6일 공식적으로 조직되었다.

몰몬경 :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

1823년 9월, 조셉은 고대 선지자의 방문을
받는다. 자신의 이름을 모로나이라 밝힌 이 천사는
조셉에게 팔마이러 근처의 언덕을 찾아가도록
했으며, 그곳에서 그는 땅속에 묻혀 있던 고대
미대륙 문명 사회의 종교적인 역사가 새겨진
금속판을 보여 주었다. 그 일이 있은 후 조셉은 그
기록을 주님의 허락에 따라 4년 뒤에 번역하였다.
그 기록은 그 기록을 수집했던 고대 선지자 가운데

한 명의 이름을 딴 '몰몬경'으로 알려져 있다. 몰몬경은 1830년에 처음 출판되었다.

몰몬경은 약 B.C. 2200년에서 A.D. 421년 사이에 고대 미대륙 문명 사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담은 종교적인 기록이다. 몰몬경은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이후 미대륙에서 베푸신 성역에 대한 목격자의 기록을 포함한다.

1846년 2월 조셉 스미스의 뒤를 이어

교회를 이끌게 된 브리검 영은

얼어붙은 미시시피 강을 건너

장장 2,100km나 되는 거리를 여행하여

1847년 7월 24일에

솔트레이크 계곡에 도착했다.

신권 권능의 회복

모든 시대에 걸쳐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할 권능을 그분으로부터 받았다. 그리스도 시대의 십이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안수하심으로써 이 신권 권능을 받았다. 그러나 이들의 사망 이후, 사도의 권능은 이 세상에서 사라졌고 그 후 회복의 본질적인 구성 요소인 신권 권능이 1829년에 다시 회복된 것이다.

그 해 5월, 부활한 천사의 모습으로 침례 요한은 조셉 스미스와 그의 동료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나타났다. 침례 요한은 그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침례와 다른 의식들을 집행할 수 있는 권능인 아론 신권을 주었다. 그 일이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초기 사도였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조셉과 올리버에게 나타나 사도의 권능과 좀더 높은 신권인 멜기세덱 신권을 주었다. 신권 권능이 회복되었으므로 조셉은 6명의 초기 회원들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를 조직할 수 있었다.

성장과 방해

고대 교회처럼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도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로써 시작했다. 19세기 중반에 다른 지역의 개종자들은 미국으로

집합하라는 권고를 받는다. 유럽과 미국 동부에서 몰려든 이주자들의 행렬은 곧 방해 세력의 성장을 가속화시켰다.

계속해서 확대되는 소란을 피하기 위해 교회 본부는 뉴욕에서 오하이오로, 또다시 미주리로 옮겨갔으며 나중에는 일리노이까지 이동했다. 1839년 후기 성도들은 미시시피 강가의 황량한 습지 위에 (일리노이) 나부 공동체를 설립했다. 조셉 스미스의 지도 하에 후기 성도들은 습지에 배수 시설을 하고 단란한 가정과 번영하는 농장, 그리고 공동 사업체를 세우기 시작했다. 그들은 또한 성전을 지었다.

1844년경 나부는 인구수에서 시카고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 그러나 이웃 공동체들 사이에서 쌓여 가는 의심과 불안은 극단적인 동요와 불신의 분위기를 만들었다. 이웃 도시에서 발행되는 신문은 후기 성도 근절령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소동의 절정기에 조셉 스미스와 그의 형 하이람은 일리노이 카테지에서 무장 폭도에 의해 총살되었다.

브리검 영과 서부로의 이주

폭도들은 그 지역에 있는 후기 성도 개척지를 공격해 농작물을 불사르고 가정을 파괴하며 사람들을 없애버리겠다고 위협했다. 교회 지도자들은 한번 더 이동해야 할 때임을 감지했고, 미국 역사에서 가장 실현 불가능한 경이적인 여행이 시작되었다.

십이사도 중 선임자인 브리검 영이 조셉 스미스의 뒤를 이어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 1846년 2월, 브리검 영은 후기 성도들을 쾰롱 얼어붙은 미시시피 강에서 아무도 살지 않는 아이오와 지역으로 이끌었다. 그들은 힘들어



18²³년 9월, 모로나이라고 하는

부활한 모습의 천사가 조셉에게 나타나 ...

금판에 새겨져 땅에 묻혀 있던

고대 미대륙 문명의 종교 역사를 보여 주었다.

조셉 스미스는 그 후로 4년 뒤에 이 기록,

즉 몰몬경을 번역하여 ...

1830년에 처음 출판하였다.

아이오와를 횡단했으며 결국엔 오늘날 네브래스카 주의 오마하 근처에 윈터 쿼터즈라 불리는 정착지를 건설했다. 곧 이 공동체는 강의 양 옆에 수백 채의 가옥이 세워질 정도로 팽창했는데, 대부분이 움집과 오두막집이었다.

브리검 영은 조셉 스미스가 초기에 명료하게 설명한 시현을 그대로 따랐기 때문에 그 당시 17,000명 가량되는 후기 성도들이 서쪽으로 1,300마일 떨어진 로키 산맥의 광활한 황무지를

손수레 부대 가운데 8개 부대는 비교적 성공적으로 여행을 마쳤지만, 2개의 부대는 굶주림, 피로, 그밖에 여러 가지 어려움에 노출되어 수백 명이 죽는 비극을 겪었다.

솔트레이크시티에 도착하고 수년 동안 브리검 영은 교회 회원들에게 서부 전역에 걸쳐 집단 거주지를 세울 것을 지시했다. 개척자들은 남부 앨버타에서 멕시코에 걸친 1천 350마일의 광활한 지역에 600개 이상의 공동체를 설립했다.

현대로의 전환

유타가 1896년 1월 4일에 45번째 주로 승격되었을 당시 교회 회원 수는 25만 명으로, 대부분 유타에 거주했고 일부는 서부 미국과 남부 앨버타와 북부 멕시코 지역에 산재해 있었다. 1930년경까지도 교회 회원 중 절반이 유타에 살고 있었으며 그 나머지 대부분은 여전히 북미인들이었다. 교회 회원 수는 20세기를 지내면서 획기적으로 늘었다. 1947년에 1백만 명, 1963년에 2백만 명, 1971년에 3백만 명, 그리고 1978년에는 4백만 명에 달하면서 인구 통계적으로 주로 미국 거주민들이었던 회원 분포 성향이 두드러진 변화를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유타가 차지하고 있던 부분은 점차 축소되었다.

교회 회원 수는 2004년 말에 1천 2백만 명이 넘었다. 그 통계에 따르면 총 회원 수 가운데 약 1/7이 유타에 살고 있었으며 46%가 미국인이었다.



횡단하는 역사적인 이주를 하도록 준비시켰다. 첫 번째 개척자 부대는 이듬해 이른 봄에 윈터 쿼터즈를 출발해 1847년 7월 24일에 그레이트 솔트레이크 계곡에 도착했다.

그 후 5년 동안 다른 수천 명의 후기 성도들은 새로 건설된 피난처까지 미국의 대평원을 가로질러 나아갔다. 개척자 가운데 일부는 마차로 이 대평원을 횡단했다. 다른 개척자들은 작고 가벼운 손수레를 준비했다. 10개의 손수레 부대가 이 후 4년에 걸쳐 미대평원을 횡단했다. 10개의

교회 회원은 2004년 말에 1천 2백만 명이 넘었으며, 그 총 수 가운데 약 7분의 1이 유타 주에 거주하고, 40%가 미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1997년 2월부터, 미국 이외 지역의 교회 회원수가 미국 내 교회 회원수를 초과하였다.

구성 및 조직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교회의 제일회장과

두 명의 보좌로 이루어진

제일회장단에 의해 인도된다.

후기 성도들은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를

교회를 인도하기 위한

신성한 계시와 영감을 받는

선지자로 간주한다.

세계 행정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교회의 제일회장과 두 명의 보좌로 이루어진 제일회장단에 의해 인도된다. 후기 성도들은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를 교회를 인도하기 위한 신성한 계시와 영감을 받는 선지자로 간주한다.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평의회는 함께 교회의 주된 정책 입안 및 행정 기구를 이룬다. 사도들은 전세계에 걸쳐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증인이 되는 것과 모든 곳에 있는 교회가 질서정연하고 올바르게 운영되도록 하는 성경 상의 책임을 진다. 교회 제일회장이 사망할 때에는 선임 사도(나이가 아닌 사도로서의 봉사한 기간에 따라 결정됨)가 교회의 제일회장이 된다.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정책들은 주로 칠십인으로 알려진 다른 선임 지도자들을 통해 이행된다. 칠십인 대부분은 전세계 다른 나라에 거주하며 교회의 성장과 발전을 감독한다.

교회의 회중은 그 지역에서 상당한 자치권을 지니고 있는 무급 지도자에 의해 관리된다. 교회의 주된 지리적 분할은 와드(일정 지역의 회원들 조직), 스테이크(몇 개의 와드로 구성) 및 지역으로 되어 있다. 각 행정 단위에서 교회 지도자들은 그들이 통솔하는 사람들을 돕고 훈련한다. 감독은 지역 교회 회중을 관리하고, 일반 회중들에게 가장 자주 영향을 미치는 지도자이다.

스테이크와 와드에는 유급 성직자가 없다. 스테이크나 와드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교회 지도자들은 회원들에게 봉사 중심의 직책을 주어 일을 하도록 요청하고 있으며, 요청을 받은 회원들은 교회를 위하여 상당량의 일과 봉사를 수행한다. 자발적으로 참여한 회원에게는 봉사를 통해 재능을 나누며 새로운 기술을 얻을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주어진다.

교회 회원은 모두 지역이나 전세계를 감리하는 역원이 제시한 역원과 행정상의 모든 제안을 지지할 투표권이 있다. 또한 자신의 인생과 교회의 특정한 책임 분야를 위한 계시를 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

지원 조직

교회는 교육 기구, 복지 기구 및 선교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호부조회, 주일학교, 청남, 청년 및 초등학교라 불리는 지역 보조 조직을 위한 명확한 지침을 가지고 있다.

‘상호부조회’는 매우 역사가 오래된 세계적인 대규모 여성 조직이다. 이 조직은 병들고 궁핍하며 자선 봉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1842년에 창설되었다. 주중에 갖는 모임에서 이 조직은 종교, 가정 및 가족 교육, 자선 봉사, 사교적 관계 및 가정 관리와 같은 다양한 주제에 대해 가르친다. 상호부조회는 또한 여러 나라에서 문맹 퇴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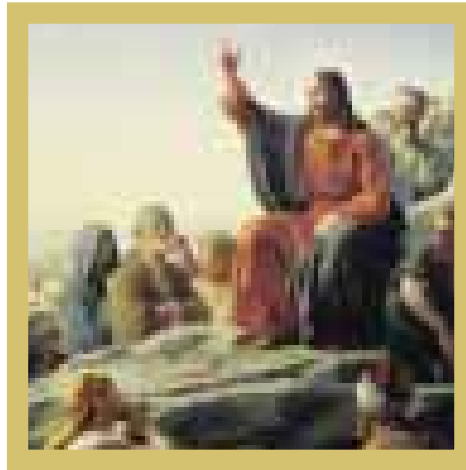
12세 이상된 교회 회원들은 연령별 그룹에서 종교적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주일학교’에 참석한다.

교회 청소년들을 위한 영적인 훈련과 사교

활동, 문화 활동들은 '청남', '청녀' 조직 그리고 일부 나라에서는 스카우트 모임을 통해 제공한다. 12세에서 17세까지의 청소년들은 일요일에 종교적 학습을 위해 배정된 반에서 모임을 한다. 이들은 또한 신앙과 인격을 도야하고 육체적 건강을 강화시키기 위한 사교 활동과 문화 활동, 그리고 오락 활동을 위해 한 달에 여러 번 모임을 한다.

'초등학교'는 부모가 3세에서 11세까지의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원리를 가르치는데 도움을 준다. 아이들은 종교적인 가르침을 받고 서로 사귄 수 있도록 매주 모인다. 18개월부터 3세까지의 아이들은 일요일 유아반에 참석할 수 있다.

독신들을 위한 교회의 프로그램은 결혼하지 않은 모든 나이의 성인들을 위해 운영된다. 이



모임의 참석자들은 영적이고, 문화적이며, 오락적이고, 사교적인 활동과 봉사 활동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교제할 기회를 갖는다.

'가정 복음 교사'와 '방문 교사'들은 지역에 속해 있는 모든 개인 및 가족에게 감독의 대표로서 봉사한다. 남성 신권 소유자들은 '가정 복음 교육'으로 알려진 임무를 맡아 한 달에 한 번, 각 후기 성도 가정에 2명씩 짝을 지어 방문한다. 이들은 각 가정에 영감에 찬 메시지를 전할 뿐 아니라 그들을 인도하고 호의를 베풀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가정을 위해 봉사한다. 이들은 각 가정이 재정적, 경제적, 육체적, 그리고 영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이와 유사하게 '방문 교사'라 불리는 성인 여성 회원들 역시 2명이 짝을 이뤄 교회 내 모든 여성들의 세상적이고 영적인 필요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돕고 자선 봉사를 하도록 지명을 받는다.

핵심적인 믿음과 교리

신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을 믿는다. 이 세 분은 목적에서 하나이지만 각자 다른 개체로서 신회를 구성한다.

기독교인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을 믿는다.

이 세 분은

목적에서 하나이지만

각자 다른 개체로서

신회를 구성한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가톨릭 교회나 신교가 아닌 기독교이다. 오히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셨던 초대 교회가 회복된 교회이다.

신성한 신권 권능

신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는 권능이다.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 행할 수 있는 신권에 대해 부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단순히 주어질 수 없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첫 번째 선지자이자 교회의 제일회장였던 조셉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우리는 사람이 복음을 전파하고 그 의식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예언에 의하여 또 권세있는 자에 의한 안수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아야 함을 믿는다.” (신앙개조 제5조)

원리와 의식

교회가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첫째되는 원리와 의식은 “첫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둘째 회개, 셋째 죄 사함을 위한 침수로써의 침례, 넷째 성신의 은사를 위한 안수례”이다. (신앙개조 제4조) 성경 시대와 동일하게 침례는 한 사람이 죄에서 깨끗해지는 것을 상징하며 완전한 침수로써 행해진다. 어린아이들은 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연령인 8세가 될 때까지는 침례를 받지 않는다.

계속되는 계시

교회 회원들은 사실상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계시의 원리를 믿는다. 개인은 각자의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신성한 계시를 받을 자격이 있다. 부모는 자신의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계시를 받을 자격이 있다. 교회 전체의 관리를 위한 신성한 계시는 후기 성도들이 아브라함, 모세, 베드로 및 다른 성경 상의 지도자들과 동일한 능력을 지닌 선지자로 보는 교회의 제일회장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교회는 불법적이든 합법적이든

마약의 오용을

경전상에 “지혜의 말씀”으로 알려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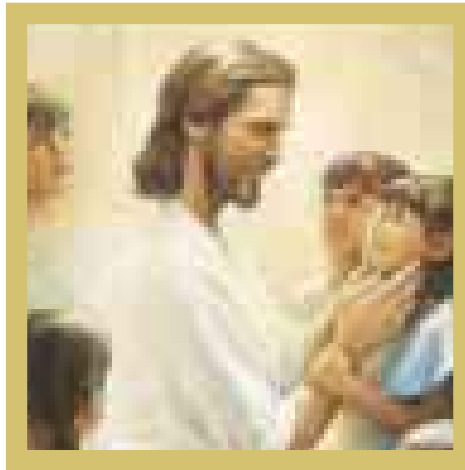
건강의 율법을

어기는 것으로 해석한다.

경전

물문경 :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은 성경처럼 신성하게 영감받은 경전으로 간주된다. 후기 성도들은 이 두 책을 함께 사용한다. 경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다른 기록들은 ‘교리와 성약’(교회가 회복된 후 주어진 계시와 기록들이 수록됨)과 ‘값진 진주’(조셉 스미스의 계시와 번역한 자료와 기록이 담겨 있음)이다.

인생의 목적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구성하는 영과 육체를 갖고 있다. 하나님의 영의 자녀로서 모든 사람들은 전세에서 그분과 함께 살았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모든 사람은 육체를 얻고, 경험을 하며,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데 필요한 합당성을 증명하기 위해 지상에 왔다. 후기 성도들에게 지상에서의 삶이란 시련과 시험을 받음을 통해 그 어느 곳에서도 얻을 수 없는 경험을 하는 단계이다.

가족과 결혼

교회는 우리의 문명 사회에 대한 근본으로 가족이 중요함을 가르친다. 영원히 함께 결합되어 진보하는 가족 개념은 후기 성도 교리의 핵심이다. 교회 성전에서 집행하는 결혼은 사망으로 인해 끝나지 않는다. 오히려 이러한 방식으로 “인봉된” 결혼과 가족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충실히 지키는 것을 통해 영원히 지속될 수 있다. 1995년에 교회 지도자들은 ‘가족 :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이라는 공식적인 선언문에서 결혼과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상 생활

교회는 개인의 정직, 고결, 법에 대한 순종, 결혼 전 순결 및 결혼 생활 동안의 정절 등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친 도덕적 표준을 채택하고 있다. 교회는 낙태, 외설물, 도박 및 기타 비도덕적인 행위에 반대한다.

건강의 율법

1833년에 하나님에 의해 조셉 스미스에게 계시된 건강의 율법은 흡연과 술, 차 그리고 커피를 마시지 않도록 하며 현명한 식습관과 신체적, 영적 건강의 유익을 강조한다. 교회는 불법적이든 합법적이든 마약의 오용을 경계하며 이는 경전에서 “지혜의 말씀”으로 알려진 건강의 율법을 어기는 것으로 해석한다.

십일조와 금식 헌금

충실한 회원들은 교회의 사업을 위해 수입의 10분의 1을 기부한다는 성경 상의 십일조 원리를 받아들인다. 충실한 회원들은 또한 매월 1회씩 두

끼를 금식하여 이 두끼에 해당하거나 더 많은 금액을 궁핍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기금으로 교회에 기부한다. 이러한 회원들의 헌금은 교회가 건축, 교육, 복지, 선교 사업, 교과 과정 및 전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인도주의 및 기타 프로그램의 재정을 위해 사용한다.

개인적인 책임

교회는 자신의 영적이고 현세적인 복리의 책임은 우선적으로 개인에게 있고, 그 다음으로 가족, 그리고 교회에 달렸으며 교회 회원들은 자신의 능력대로 자립하고 독립하도록 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선교 사업

작을 지어 봉사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전세계 주요 도시에서 볼 수 있으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를 가장 쉽게 식별할 수 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전세계에서 봉사하고 있는

전임 선교사 수는 약 56,000명이다. 이들 대부분은 대학생 연령의 남녀들이고, 은퇴한 후에 자원 봉사하는 부부들도 있다. 모든 선교사는 교회 본부로부터 자신의 선교 사업 지역을 배정 받는데 해당 국가가 선교 사업을 허가한 곳이면 어떤 지역이라도 해당될 수 있다. 그들은 현지의 언어를 배우며 최대한 2년 동안 선교사로서 봉사하고 있다.

교회 봉사

교회에는 일반적인 유급 성직자가 없다. 전세계에 있는 수천 명 후기 성도 감독들은 자신들의 일상적인 직업을 갖고 수 년간 여유 시간을 활용해 회중을 인도한다. 대부분의 회원들은 무급 교사, 보좌, 집행자, 청소년 지도자 및 서기로 봉사함으로써 감독의 책임을 덜어 준다. 교회 회원들은 그 외에도 봉사의 마음으로 자주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성전 : 가족이 영원히 맺어지는 곳

가족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

결혼이 영원할 수 있다는 것은 후기 성도들만의 독특한 가르침이다. 그러한 결혼은 하나님을 대신해 지상에서 행할 수 있는 권능인 신권을 소유한 사람에 의해 성전에서 행해져야 한다. 성전 결혼이 효과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충실해야 하며 일생 동안 그리스도와 같은 봉사와 헌신을 계속해야 한다. 1995년 교회는 ‘가족 :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이라는 공식적인 선언문을 통해 결혼과 가족의 중요성을 재천명한 바 있다.

성전과 계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관해 배워 본 적이 없고, 교회에 가입하지 않은 채 살다가 사망했다. 교회는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 죽은 사람들을 대신해 지상에서 침례와 영원한 결혼과 같은 의식들이 집행되어야 한다고 가르친다. 후기 성도들은 거룩한 성전에서만 이루어지는 이러한 의식에서 조상들의 대리인이 된다. 그들은 이러한 의식들이 다음 세상에서 선택할 수 있는 도덕적 선택의지를 지닌 조상들이 그것들을 받아들일 경우에만 유효하다고 믿는다.

교회 회원은 자신의 계보를 찾고, 조상을 위한 성전 의식을 집행할 종교적인 책임에 대해 배운다. 따라서 후기 성도의 경우, 성전과 가족 역사를 끊을 수 없는 연결고리가 된다.

2005년 10월 현재 교회는 122개 성전을 운영하고 있고, 건축 중이거나 계획 단계에 있는 12개 성전이 있다.(현 성전의 위치에 대한 모든 목록은 “교회의 성전”을 참조)

가족 역사

조상에 대한 자료를 찾는 것을 돕기 위해 교회는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 중심가에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계보 도서관인 ‘가족 역사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교회와 회원들은 수백만 권의 출생, 결혼, 사망 그리고 기타 기록들을 수집했다. 마이크로필름으로 된 이 기록은 일반인들도 무료로 열람할 수 있다. 이 마이크로필름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솔트레이크시티에 소재한 도서관이나 전세계에 산재한 3천 4백 개 이상의 가족 역사 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죽은 자를 위한 모든 구원 의식이
지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가르친다.
후기 성도들은 조상을 위해
이러한 의식, 곧 침례 및 남편, 아내,
자녀간을 하나로 묶는 인봉 등을
대신 받는 대리인이 된다.



결혼이 영원할 수 있다는 것은 후기 성도만의 독특한 가르침이다. 그 같은 결혼은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성전과 같은 성전에서 거행되어야 한다.

선교사 프로그램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가

선교 사업에 역점을 두는 것은

가장 잘 알려진 특징이다.

이 프로그램은

성경에 있는 원형에 따라

선교사들을

둘씩 짝을 지어 보낸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 전 세계로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 프로그램은 선교사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라는 성경 상의 가르침을 따른 것이다.

선교부

교회는 전 세계에 330개 이상의 선교부를 운영하고 있다. 한 선교부는 특정 지역을 담당하고 그 지역의 중심에 본부를 둔다. 각 선교부는 3년간 그 지위에 있도록 교회 지도자들이 선택한 선교부 회장이 인도한다. 선교부 회장은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선교 지역으로 옮겨 선교사들의 활동을 관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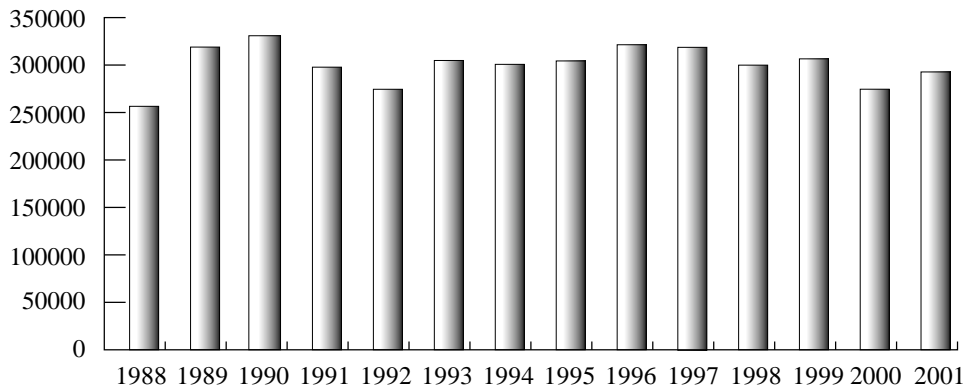
선교사

현재 약 5만 6천 명 후기 성도 선교사들이

전 세계 선교부에서 전도에 전념하고 있다. 교회의 전임 선교사들 가운데 75% 정도가 19~26세의 젊은 남성들이다. 이들은 장로 신권 직분에 성임되었으므로 “장로”라 불린다. 이와 더불어 독신 여성(18%)과 나이든 부부들(7%)도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다. 각 장로와 자매 선교사는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특정한 선교부에서 봉사하라는 임무 지명을 받는다. 대체로 선교사들은 매주 60~65시간을 2년(장로들의 경우) 또는 18개월(자매 및 부부 선교사들의 경우)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을 가르치고 지역 사회 봉사에 참여하면서 보낸다.

이외에도 약 5천 1백 명의 개인들(부부 선교사들 포함)에게 특별한 봉사 임무가 주어진다. 건강 전문가들과 의사들은 교회의 건강 봉사 프로그램에 따라 예방적인 관리를 가르치기 위해 개발 도상국으로 파송된다. 전문인, 기계공,

1988년 이래의 개종자 침례



침례 수의 매년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건축 감독자들은 지역 건축 프로젝트에 포함된 회원들을 훈련한다. 농업 전문가들은 식량을 좀더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사람들을 훈련시킨다. 교육, 가족 역사 탐구 및 지도자 훈련이 기타 선교 임무에 포함된다.

선교사나 그들의 가족은 선교사들의 생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회에 기부한다. 선교사 봉사 기간이 끝나면 선교사는 직업이나 학업 또는 기타 개인적인 목표들을 추구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간다.

선교사 훈련원

선교부로 떠나기 전에 각 선교사는 전세계에 산재한 17개의 선교사 훈련원 가운데 한 곳으로

배정 받는다. 다른 언어를 배워야 하는 선교사들은 지정된 선교부로 출발하기 전 8주 동안 훈련원에서 보낸다. 새로운 언어를 배울 필요가 없는 경우, 이들은 2~3주간의 기본적인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한다.

준비

선교사 훈련원에서 행해지는 간략한 오리엔테이션 외에도 선교사들은 그들의 선교 사업 동안 어느 정도의 공적인 훈련을 받는다. 선교사 준비는 주로 개인적인 학습이 전부이며, 대부분 어린 시절 가정에서 보는 모범에서부터 시작된다.

전도 선교사 : 남자 = 75%
 독신 여성 = 18%
 부부 선교사 = 7%
 총계 = 약 56,000명

세계에 산재한 선교사 훈련원 : 17개

위치

유타 주 프로보(미국), 영국 프레스턴,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브라질
 상파울루, 멕시코 멕시코시티, 칠레 산티아고,
 콜롬비아 보고타, 페루 리마, 과테말라
 과테말라시티, 뉴질랜드 해밀턴, 필리핀 마닐라,
 일본 동경, 한국 서울, 도미니카 공화국
 산토도밍고, 스페인 마드리드

**미국 유타 주 프로보에 소재한 선교사
 훈련원에서 가르치는 언어 : 50개**

1830년 이후로 성장을 계속하는 교회

연도	회원	선교부	선교사	국가
1830	6 ²	0	0	1
1844	26,146	3	586	8 ³
1947	1,016,170 ⁴	43	2,132	29
1963	2,117,450	77	11,653	43
1971	3,090,953	98	15,205	50
1978	4,166,854	165	27,669	54
1982	5,162,619	180	26,606	86
1986	6,166,983	193	29,265	95
1989	7,308,700	228	39,739	100
1991	8,089,540	267	43,395	130
1994	9,024,569	303	48,708	156
1995	9,340,000	307	48,631	159
1996	9,694,500	309	53,000	160
1997	10,070,524	318	56,531	162
1998	10,354,241	331	57,853	162
1999	10,752,986	333	58,593	162
2000	11,068,861	334	60,784	162
2001	11,394,522	333	60,854	162
2002	11,721,548	335	61,638	165
2003	11,985,254	337	56,237	165

상기 도표에 대한 주 : 1. 지역 2. 1830년 4월 6일 설립시 3. 추정 4. 이후 주어진 수치들은 매년 말에 산출된 것임

복지 및 인도주의적 봉사

복지 사업은

경전에 제시된 원칙에 따라 실시된다.

교회 회원들이

매달 한 번씩 하루 동안 금식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위해

금식한 식사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발적으로 기부함으로써

복지 사업에 필요한 기금이 마련된다.

교회 복지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목적은 수혜자에게 구호 물품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자립을 하도록 돕는 것이다.

회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자신을 위해 준비하도록 격려 받는다. 추가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우선 자신의 가족들에게 도움을 청한다. 회원과 그의 가족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으나 아직도 도움이 필요하다면 교회는 일시적으로 생활해 나가는 데 필요한 것을 제공하여 나중에 이 가족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게 한다.

지역 지도자들은 개인 또는 가족과 협의해 필요 사항을 결정한다. 지역 회원의 지도자로서 회원들의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감독'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에 맞는 작업을 받아들일 것을 요청한다. 그들은 교회 복지 사업 기관에서 일할 수 있거나 집회소 마당을 아름답게 하거나 다른 궁핍한 회원들을 위해 봉사하는 일을 할 수 있다. 이들이 행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교회는 받은 것에 대한 대가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존심을 지키고 자립을 훨씬 더 잘 유지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교회 복지 프로그램을 위한 재정은 특별한 곳에서 나온다. 회원들은 금식, 즉 매달 한번은 하루 동안 식사를 하지 않는다. 이들이 금식한 식사에 해당하는 가치나 그 이상이 공핍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기부된다. 이외에도 자원 봉사자들은 교회 복지 농장, 통조림 공장 및 기타 다른 시설에서 상당 양의 노동력을 제공한다. 2004년 한 해 동안 자원 봉사자들이 제공한 노동력은 4,368,000 시간에 달한다.

복지, 직업 소개, 생필품 원조 및 교육이 이 교회 복지 서비스에 포함된다. 2004년에 교회 고용 센터는 미국과 캐나다 지역의 95,748명을 비롯하여 전세계적으로 105,086명에게 일자리를 알선해 주었다. 창고(128곳), 통조림 공장(105곳), 고용 센터(259곳), 데저렛 검약 상점(48곳), 신권 운영 제조 프로젝트(59곳)등이 복지 서비스 장소에 포함된다.

개별적 비영리 법인인 LDS 가족 서비스는 65개 사무소에서 입양, 보호 양육 및 카운셀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교회로부터 매년 보조금을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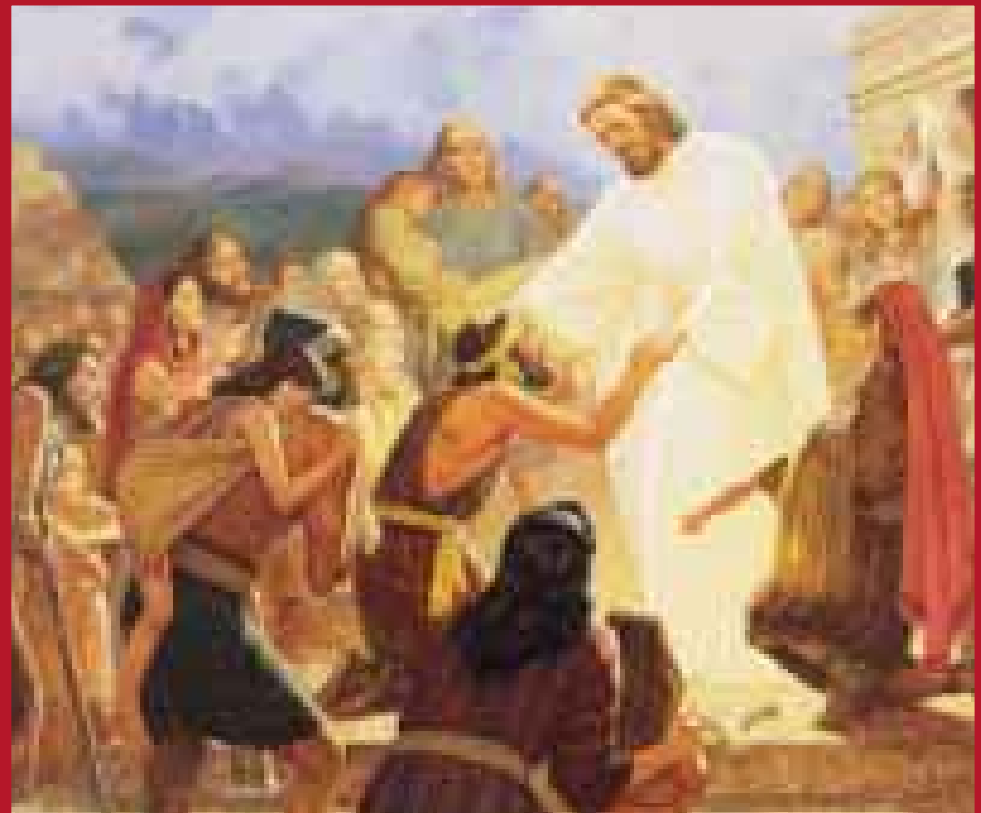
거의 3천 명에 달하는 복지 선교사들이 생산,

교회 복지 프로그램의 핵심은

자립을 실천하고,

타인에게 도움을 구하기 전에 최선을 다하는

회원 개개인에 있다.



고용, 교육, 사회 및 의료 봉사에서 기술을 전하며
무급으로 40개 이상의 나라에서 봉사하고 있다.
교회와 회원들은 1986년 이후로 170건의 심각한
자연 재해 희생자들에게 원조 물자를 보냈다.

어느 공동체든지 심각한 자연 재해를 겪거나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에 직면하면 교회는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인도주의 원조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그 목적은 종교, 인종, 국적, 또는 기타
다른 이유와는 무관하게 궁핍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인도주의 원조는 159개
국에 매년 수십억 달러에 이른다. 1985년 이후
47,410톤의 식량, 6,670톤의 의료 장비,
63,404톤의 의복과 5,563톤의 교육 용품들이
지원되었다. 교회는 식량을 지원하고 재난 시
도움을 제공하며 재난을 당한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기금과 격려 프로젝트를, 자립을 가르치고
자신의 가정에서 소규모 창업을 시작하도록 돕는
기구인 후기 성도 자선 단체들을 세웠다.

복지 원리

도움을 줄 때 품위와 자존심을 지켜 준다.

가족을 강화한다.

복지 필요 사항을 최대한 충족시킨다.

지역 사회의 지원을 촉진한다.



교회 교육 기구

후 기 성도들은 교육의 가치를 높이 평가한다. 전세계에 있는 대부분 교회 회원들은 세속적인 교육을 받기 위해 신앙 밖의 동료들과 함께 주 또는 정부 학교에 등록한다.

이외에도 고등학생과 대학생 연령의 학생들에게 종교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1백여 국가와 지역, 그리고 미국에서 교회 교육 기구가 운영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종교적 신앙을 강화시키고 인생에서 겪는 도덕적 도전들에 잘 대처하도록 도우며 계속해서 세속적인 교육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회는 미국 사립 대학 중 가장 큰 브리검 영

대학교를 운영하는데 이 학교는 유타 주 프로보에 본교가 있고 하와이 주 라이에와 아이다호 주 리스버그에 분교가 있다. 또한 이스라엘에 근동 학술 연구를 위해 설립한 예루살렘 센터, 그리고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에 소재한 LDS 실업 대학 등 몇 개의 대학과 단과 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교회는 또한 멕시코, 키리바시, 뉴질랜드, 통가, 서사모아 및 피지에 초등학교와 중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브리검 영 대학교와 교회 교육 기구에서 후원하는 추가적인 성인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교회 교육 기구는
세미나리에 등록된
고등학교 연령층의 학생들과
종교교육원에 등록된
대학생 및 독신 회원들을 위한
교육을 담당한다.
이들 프로그램은
교회 집회소나 학교에 인접한 곳에
교회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건물에서
매주 종교 교육을 실시한다.

교회 교육 프로그램 등록자 수 (2004년 1월)

나라와 지역	126
세미나리 (중등학교 수준)	361,686
종교 교육원 (대학교 수준)	365,070

교회 소유 단과 대학과 종합 대학 등록자 수 (2004년 9월)

브리검 영 대학교 (유타)	28,014
브리검 영 대학교 (하와이)	2,447
브리검 영 대학교 (아이다호)	10,252
LDS 실업 대학	356
기타 교회 학교	9,255

태버내클 합창단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태버내클 합창단은

350여 명으로 구성된 합창단으로,

후기 성도 개척자들이

솔트레이크 계곡에 처음 도착한

1847년에 시작되었다.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솔트레이크
물론 태버내클 합창단은 후기 성도
개척자들이 1847년, 솔트레이크 계곡에 처음
도착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조직되었고 현재
단원수는 340명이다.

태버내클 합창단은 솔트레이크시티에 소재한

템플 스퀘어에서 진행되는 음악과 진리의
말씀(Music and Spoken Word)이라는 미국내
일요일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 프로그램은 1929년부터 미국 라디오
프로그램의 전설이 되어 왔으며 많은 텔레비전
방송국에서도 방영되고 있다.

이 합창단은 또한 여러 음반으로도 알려져 있는
데 그 가운데는 “공화국의 전승가”라는 그래미 상
수상곡도 들어 있다. 합창단은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예루살렘
심포니 오케스트라 등 세계적으로 뛰어난
오케스트라와 함께 녹음을 하기도 했다.

합창단은 수년에 걸친 공연 여행을 하며 유럽,
멕시코, 브라질, 캐나다,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이스라엘, 러시아 및 미국 등지의 유명한 콘서트
홀에서 노래했다. 또한 미합중국 대통령 취임식과
백악관 공연을 하기도 했다.

주요 사실과 수치

2005년 12월 31일, 현재 회원 수:

- 전세계 : 12,560,869명
- 미국 (approximate) : 5,690,672명
- 미국 외 지역 (approximate) : 6,870,197명
- 여성 회원 : 53 %, 남성 회원 : 4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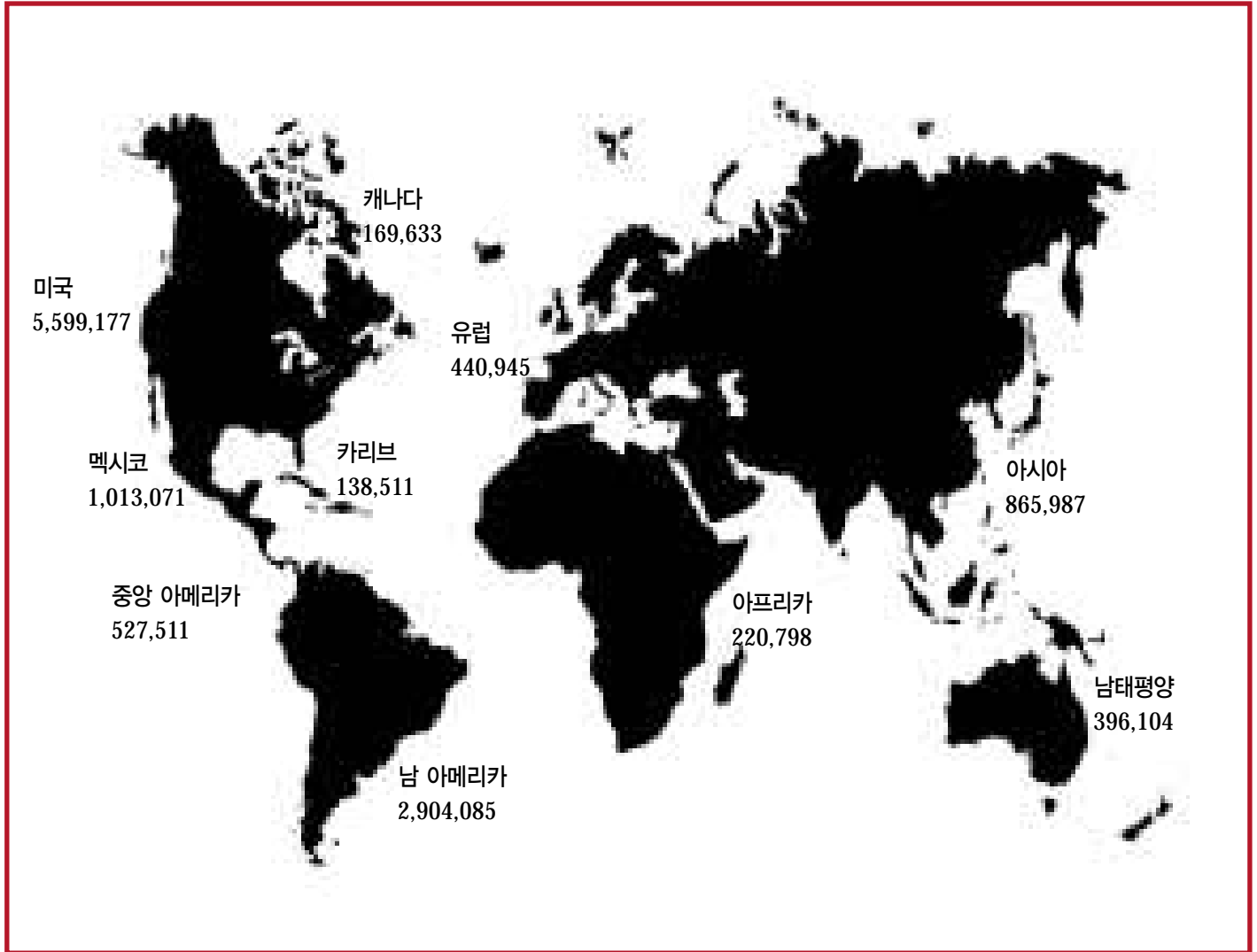
세계에 산재한 교회 단위 조직 수(회중) : 27,084개

기본적인 교회 공과 과정 교재에 사용되는 언어 : 157개

물문경 :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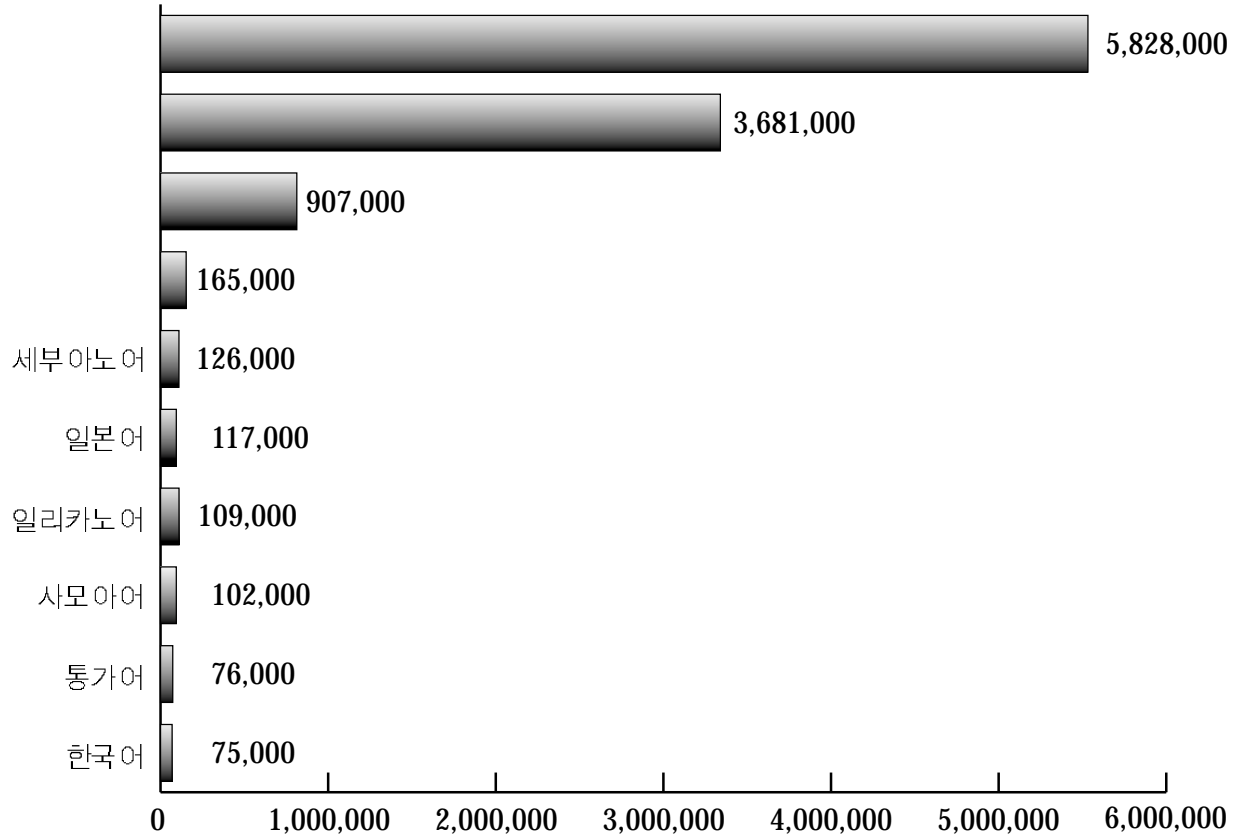
- 1830년 이후 발행 부수 : 128,991,640권
- 2005년에 배포된 부수 : 4,621,515권
- 출판 언어 수 : 105개

회원 분포



2004년 말 현재 전세계 회원 분포

교회 회원들에 의해 사용되는 언어 10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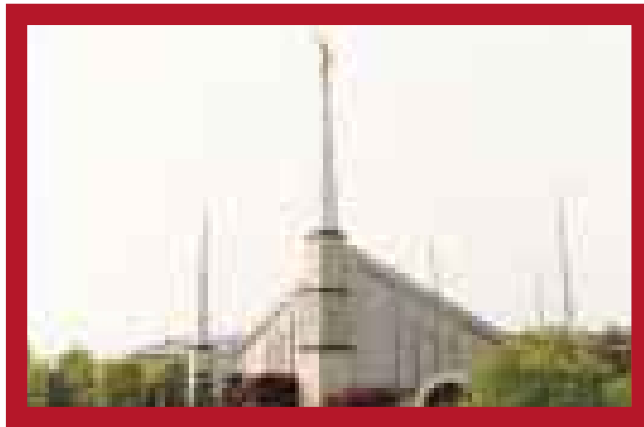


(2004년 자료 기준, 추정치에 의존)

교회의 성전

운영중인 성전

위치/헌납된 해	위싱턴 디시	1974	스웨덴 스톡홀름	1985
오하이오 커틀랜드*	1836 브라질 상파울루	1978	일리노이 시카고	1985
일리노이 나부**	1846 일본 동경	1980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	1985
유타 세인트 조지	1877 위싱턴 시애틀	1980	한국 서울	1985
유타 로건	1884 유타 조던 리버	1981	페루 리마	1986
유타 맨타이	1888 조지아 애틀랜타	1983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유타 솔트레이크시티	1893 사모아 아피아	1983		1986
하와이 라이에	1919 통가 누쿠알로파	1983	콜로라도 덴버	1986
앨버타 카드스턴	1923 칠레 산티아고	1983	독일 프랑크푸르트	1987
애리조나 메사	1927 타히티 파페에테	1983	오리건 포틀랜드	1989
아이다호 아이다호 폴스	1945 멕시코 멕시코시티	1983	네바다 라스베이거스	1989
스위스 베른	1955 아이다호 보이시	1984	온타리오 토론토	1990
캘리포니아 로스엔젤레스	1956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	1984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1993
뉴질랜드 해밀턴	1958 필리핀 마닐라	1984	플로리다 올랜도	1994
영국 런던	1958 텍사스 댈러스	1984	유타 바운티풀	1995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1964 대만 타이페이	1984	중국 홍콩	1996
유타 옥든	1972 과테말라 과테말라시티	1984	유타 마운트 팀파노고스	1996
유타 프로보	1972 독일 프라이부르크	1985	미주리 세인트루이스	1997
			유타 버널	1997
			영국 프레스턴	1998
			유타 몽티셀로	1998
			알래스카 앵커리지	1999
			멕시코 톨로니아 후아레스 치와와	1999
				1999
			스페인 마드리드	1999
			콜롬비아 보고타	1999
			에콰도르 과야킬	1999
			위싱턴 스포캔	1999
			오하이오 컬럼버스	1999



한국 서울 성전

노스다코다 비스마크	1999	볼리비아 코차밤바	2000	우루과이 몬테비데오	2001
사우스캐롤라이나 컬럼비아	1999	멕시코 탐피코	2000	네브래스카 윈터권터즈	2001
미시건 디트로이트	1999	테네시 내슈빌	2000	멕시코 과달라하라	2001
노바스코샤 헬리팩스	1999	멕시코 빌라에르모사	2000	오스트레일리아 퍼스	2001
서스캐처원 리자이나	1999	퀘벡 몬트리올	2000	워싱턴 콜롬비아리버	2001
몬태나 빌링스	1999	코스타리카 산호세	2000	애리조나 스노우플레이크	2002
앨버타 에드먼턴	1999	일본 후쿠오카	2000	텍사스 러벅	2002
노스캐롤라이나 롤리	1999	오스트레일리아 애들레이드	2000	멕시코 몬테레이	2002
미네소타 세인트폴	2000	오스트레일리아 멜버른	2000	브라질 캄피나스	2002
하와이 코나	2000	피지 수바	2000	파라과이 아순시온	2002
멕시코 사우다드우아레스	2000	멕시코 메리다	2000	네덜란드 헤이그	2002
멕시코 에르모시요 소노라	2000	멕시코 베라크루스	2000	일리노이 나부	2002
뉴멕시코 앨버커키	2000	루이지애나 배턴루	2000	오스트레일리아 브리스번	2003
멕시코 와카카	2000	오클라호마 오클라호마시티	2000	캘리포니아 레드랜드	2003
멕시코 투스틀라 구티에레스	2000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2000	가나 아크라	2004
	2000	텍사스 휴스턴	2000	덴마크 코펜하겐	2004
켄터키 루이스빌	2000	앨라배마 버밍햄	2000	뉴욕 맨하탄	2004
뉴욕 팔마이라	2000	도미니카 공화국 산토도밍고	2000	텍사스 산안토니오	2005
캘리포니아 프레스노	2000		2000	나이지리아 아바	2005
오리건 메드퍼드	2000	매사추세츠 보스턴	2000	캘리포니아 뉴포트 비치	2005
테네시 멤피스	2000	브라질 레시페	2000		
네바다 리노	2000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	2000		

발표되었거나 건축중인 성전

위치/ 날짜		아이다호 렉스버그	2003년 12월 22일 발표
핀란드 헬싱키	2000년 4월 2일 발표	아이다호 트윈폴스	2004년 10월 2일 발표
우크라이나 키예프	1998년 7월 26일 발표	유타 드레이퍼	2004년 10월 2일 발표
뉴욕 해리슨	1995년 9월 30일 발표	필리핀 세부	2006년 4월 29일 발표
캘리포니아 새크라멘토	2001년 4월 22일 발표	캐나다 밴쿠버	2006년 6월 10일 발표
브라질 규리티바	2002년 9월 13일 발표	온두라스 테쿠시 갈파	2006년 6월 24일 발표
파나마 파나마시티	2002년 9월 13일 발표		

* 현재 타인 소유

** 원래의 성전 건물은 화재로 소실되었으며 새로운 성전의 건축이 1999년 4월에 발표되었다.

운영중인 성전 수 : 122

발표되었거나 건축중인 성전 수: 12

총계 : 134

교회 재정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재정적 기초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재정적 기부이다. 교회의 회원들은 구약전서에서 가르치고 행한 것과 같은 십일조의 율법을 실천하고 있다. “십일조(tithe)”는 “십분의 일(tenth)”을 의미하는 단어다. 충실한 회원들은 교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의 수입의 십분의 일을 기부한다.

고든 비 힝클리 제일회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십일조는 주님의 재정에 대한 율법입니다. 이와 같은 재정적 율법은 다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의 축복을 위한 것이라는 약속과 함께 주신 원리입니다.”

초기의 교회 지도자였던, 엔 엘든 태너(1962년 10월 11일에 성임됨) 회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충실하고 헌신적인 회원이 바로 교회의 재정적인 토대입니다. 교회 수입의 대부분은 이처럼 충실한 회원들이 바친 헌금과 십일조에 의한 것입니다.”

지출

교회 비용의 대부분은 회원들이 예배드리고 모임을 갖고 배우는 장소인 예배당과 건물들을 건축하고 유지하는 데 사용된다. 1999년 현재 대략 500개의 예배당과 다른 교회 건물들이

건축중에 있다. 브리검 영 대학교, LDS 실업 대학, 세미나리 및 종교 교육원 그리고 다른 나라에 있는 몇 개의 교회 학교와 같은 교회 교육 기관을 위해서도 상당한 액수의 기금이 쓰여지고 있다.

나머지 기금은 선교 사업과 성전 사업, 수십 개의 언어로 된 출판물들과 교회의 세계적인 운영과 같은 활동에 사용된다.

1985년에 고든 비 힝클리 제일회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모든 것들은 소비를 위한 자산이지 생산을 위한 자산이 아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기금들은 재정적 부를 가져다주지는 않지만 더 많은 후기 성도들을 창출해 내고 강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교회의 참된 부란 바로 교회 회원들의 신앙입니다.”

교회의 모든 기금은 신중하게 관리된다. 교회에는 유급 성직자가 없다.

영리를 위한 자산

교회는 얼마간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산과 투자 대상 몇 개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을 통해 많은 공동체의 예술 및 교육 단체와 자선 단체들에게 기부금을 내고 있다. 교회가 운영하는 사업에서 나오는 수입 또한 교회가 지역 공동체 운동에 참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십일조는 재정에 관한

주님의 율법입니다. …

이것은 주님께서 손수

그분의 자녀들을 축복하시리라고

약속하시며 주신 원리입니다.”

—고든 비 힝클리

교회의 올바른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라는 이름은

1838년에 하나님께서 조셉 스미스에게

계시해 주신 것으로,

교회를 정식으로 지칭할 때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라고 불러야 한다.



교회에 관한 “잘못된 개념”

잘못된 개념 :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도 정확히 말하면 “몰몬 교회”로 불리어진다.

교회의 공식적인 명칭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다. 1838년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 조셉

트레일(이주루), 또는 “몰몬 개척자”와 같은 표현에서처럼 다른 용어를 꾸미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

“후기 성도”라는 표현이 더 바람직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들을 언급할 때 “몰몬”이란 단어를 사용해도 문제는 없다.

잘못된 개념 :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기독교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창설, 역사 및 명칭은 하나님 아버지와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해 속죄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신학과 예배의 중심이라는 풍부한 간증을 지니고 있다.

잘못된 개념 :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개신교회이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그리스도 시대 초기 수세기 동안 배도에 빠졌던 초대 그리스도 교회를 지상에 회복한 교회다. 교회의 조직과 신학은 개혁과 주장의 결과로 인해 생겨난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지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재설립하거나 회복하기 위해 어린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부여해 줄 거룩한 사자를 지상에 보내셨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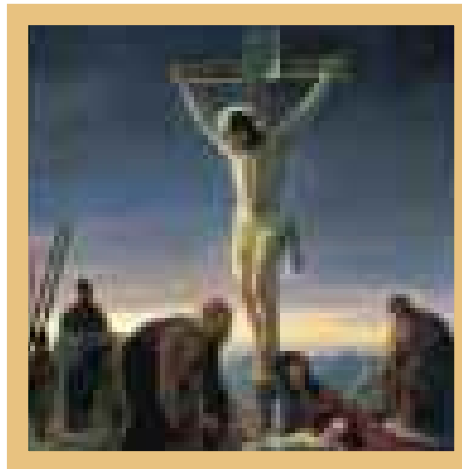
지상에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이 지상에 천사를 보내어

조셉 스미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열쇠와

권세와 권능을 부여하셨다.



스미스에게 이 완전한 명칭을 제시하셨다.

오랫 동안 공개적으로 “몰몬 교회”라는 단어가 교회의 별칭으로 사용되었지만 교회는 그 명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몰몬”이라는 단어는 [몰몬경의] 기록을 수집하고 요약한 고대 미대륙 선지자의 명칭을 딴

몰몬경 :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에 적용될 때 올바르게 사용된다. “몰몬”이라는 단어는 “몰몬 태버네클 합창단”, “몰몬

잘못된 개념 :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들은 일부 다처주의자들이다.

초기 교회의 몇몇 지도자들과 회원들은 19세기 후반에 복수 결혼을 실행했었다. 1890년에 윌포드 우드럽 제일회장이 계시를 받은 후, 이 제도가 중단되어야 한다고 선언했다. 그것에 관한 입장은 그 이후 모든 교회 제일회장들에 의해 재확인되었다. 오늘날 복수 결혼을 한 교회의

회원들을 언급할 때 미디어에서 폭 넓게 사용하는 용어이다. 따라서 일부 다처주의자들을 언급하기 위한 “몰몬 근본주의자들”이란 용어의 사용은 오해와 오역을 불러오고 혼동케 하는 것이다. 오늘날 교회의 어떤 회원도 파문되지 않고 일부 다처제를 할 수 없다. 일부 다처제를 시행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이 될 수 없으므로 일부다처주의자들을 “몰몬 근본주의자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어떤 한 인종이나 민족이 다른 인종이나 민족보다 우월하다는 혐오스럽고 비극적인 이론에 입각하여 어떤 사람에게서라도 그 사람의 천부적인 존엄성과 권리를 부인하려는 노력을 거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들은 파문이나 교회의 선도 조치를 받게 된다.

잘못된 개념 : “몰몬 근본주의자들”은 아직도 일부 다처제를 실행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들이다.

“몰몬”이란 단어는 비록 공식적인 용어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잘못된 개념 :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관련해 인종 차별주의자들이다.

1978년까지 교회의 흑인 남성 회원들은 신권에 성임되지 않았다. 그 입장은 1978년 6월 8일, 제12대 제일회장인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이 “교회 내의 모든 충실하고 합당한 남자들은 성스러운 신권을 받을 수 있다는 오랜 동안 약속되어 온 날이 왔다.”(공식 선언문 2)는 계시를 받음으로써 변경되었다.

교회는 모든 인류를 동일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즉 문자 그대로 형제 자매로 생각한다. 십이사도 정원회는 이에 대하여 1987년에 이와 같이 선언했다. “우리는 인종이나 피부색에 따라 다른 민족보다 우월하다고 여기는 혐오스럽고 비극적인 이론에 의거하여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는 존엄한 권리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운동을 거부한다.”

한국 교회의 역사 및 현황

한국에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가 소개된 것은 한국 전쟁에 참전한 미국 군인들 중에 있었던 후기 성도들에 의해서였다. 그러나 한국인으로서 최초로 회원이 된 사람은 1951년 7월, 미국 코넬 대학에서 박사 학위 과정을 밟고 있던 김호직이었다. 박사 학위를 받고 1951년 9월에 귀국한 김호직 박사는 후에 이승만

1955년 8월 2일 당시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이었던 조셉 필딩 스미스 제일회장이 한국을 방문하여 복음 선포 지역으로 헌납하였고, 한국 지방부를 조직했으며 김호직 박사가 초대 지방부장으로 부름을 받았다. 1956년 4월 20일에 한국 최초 전임 선교사 돈 지 파웰(Don G. Powell)장로와 리처드 엘 데튼(Richard L. Detton)장로가 파견되었고, 1962년 7월에는 한국 최초의 독립적인 선교부가 조직되었다.

1967년에는 한국어로 된 물몬경이 처음으로 출판되었다. 1973년 3월 8일에는 한국 최초 스테이크(교구)인 서울 스테이크가 아시아 대륙에서는 처음으로 조직되었다. 1985년 12월 14일에는 한국 서울 성전이 헌납되었다.

2004년 현재 한국 교회는 전국에 17개의 스테이크와 6개 지방부 산하 1백 5십여 개의 단위 교회에 약 8만 명의 회원이 있으며, 4개의 선교부에서 4백여 명의 선교사들이 복음 전도 활동을 하고 있다. 서울 성전에서는 연간 15만 명이 넘는 조상들을 위한 구원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국 5개의 종교 교육원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교리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교회는 1995년부터 북한 동포들에게 인도주의적 지원을 하고 있다. 밀가루, 옥수수 등 곡물과 비료, 농약 등뿐 아니라 상당량의 의료 기구 및 약품과 사과나무 등을 매년 꾸준하게 지원하고 있다.



한국인 최초의 개종자인 김호직 박사

정부에서 문교부 차관을 지내는 등 교육 및 사회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활동하면서 교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많은 기여를 하였다.

한국전쟁 기간 중 부산에서 미국 회원들과 함께 예배를 보던 한국 사람들은 부산과 서울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았다.

2002년 2월 현재

한국 교회 총회원은 8만 여명에 달하고,

교회는 전국적으로 150개가 있으며

이를 관리하는

스테이크 및 지방부는 23개이다.

또한 서울, 서울 서, 대전, 부산 등

4개의 선교부에 400여 명의

선교사들이 복음 전도 활동을 하고 있다.

연락처

한국 공보 위원회

서울시 중구 신당 6동 103-1 (100-456)
Tel. 02-2232-1441

본 교회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의 해당 지역으로 연락 바랍니다.

광주 스테이크

광주시 동구 충장로 4가 34번지 (501-014)
Tel. 062-224-4535

대구 스테이크

대구시 수성구 수성동 4가 1191-3 (706-034)
Tel. 053-755-8284

대전 스테이크

대전시 중구 선화동 246-5 (301-050)
Tel. 042-256-9088

마산 스테이크

경남 마산시 합포구 장군2가 5-3 (631-162)
Tel. 055-248-5909

부산 스테이크

부산시 동래구 온천 2동 1039-1 (1/2) (607-062)
Tel. 051-555-9273

서울 스테이크

서울시 중구 신당 6동 103-1 (100-456)
Tel. 02-2232-2219

서울 강서 스테이크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100-4 (157-010)
Tel. 02-2699-8267

서울 남 스테이크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 2동 230-14 (156-052)
Tel. 02-813-8756

서울 동 스테이크

서울시 성북구 길음동 1062번지 (136-801)
Tel. 02-980-7035

서울 동대문 스테이크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102-4 (130-070)
Tel. 02-924-3451

서울 북 스테이크

서울시 서대문구 창천동 500-18 (120-836)
Tel. 02-334-8776

서울 영동 스테이크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24-1 (138-130)
Tel. 02-448-4222

수원 스테이크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신흥동 221-3 (440-040)
Tel. 031-237-7317

안양 스테이크

경기도 군포시 산본 2동 1057-5 (435-849)
Tel. 031-394-4005

인천 스테이크

인천시 중구 답동 2번지 2호 (400-090)
Tel. 032-765-5968

전주 스테이크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 1동 1261-4 (561-190)
Tel. 063-274-4052

청주 스테이크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155-8 (361-831)
Tel. 043-262-7216

강릉 지방부

강원도 강릉시 포남동 1156-9 (210-110)
Tel. 033-646-3742

부산 서 지방부

부산시 서구 동대신동 3가 95번지 (602-103)
Tel. 051-254-3526

순천 지방부

전남 순천시 장천동 47-3 (540-190)
Tel. 061-744-2419

제주 지방부

제주도 제주시 일도2동 1045-3 (690-834)
Tel. 064-752-5861

홍성 지방부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218-2 3층 (350-800)
Tel. 041-632-6730

한국 미군 지방부

서울시 중구 신당 6동 103-1 (100-456)
Tel. 02-365-2284

참고: 상기 스테이크 및 지방부는 주중에 상근하지 아니하여 연락되지 않을 수가 있으므로 가급적 한국 공보 위원회나 선교부로 연락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교회